

BBS '의식찬불가' 5년 불사 회향

귀의·찬탄·공양·참회등 새 찬불가 100곡 마무리

불교방송이 새 찬불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91년부터 추진해 온 (찬불가 5개년 계획)이 지난 23일 마지막 20곡을 선보인 '음악공양의 밤'을 끝으로 총 100곡의 새 찬불가를 탄생시키고 5년간의 작업을 회향했다.

귀의 찬탄 예배 공양 참회 발원 회향 절기 행사와 불교의례 등 10개 분야 의식을 찬불가를 제작, 매년 20곡씩 총 1백곡의 신작 찬불가를 선보여 온 불교방송 음악공양의 밤은 찬불가 보급의 활성화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는 무대로 주목받아 왔다.

불교방송은 그동안 음악공양의 밤과 더불어 신작 찬불가 악보와 가사집을 제작, 전국의 사찰에 보급해 왔다. 올해에는 신작 찬불가 1백곡 마무리 기

념으로 악보 발간과 CD음반 제작을 통해 찬불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지난 23일 국립극장 대강당에서 95년 신작 찬불가를 발표하

를 마치고 법회의 음악회를 가졌다. 그러나 처음 시작과 달리 일반 불자들이 따라 부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을 포



소년소녀가장들이 불교음악회

한마음선원 신도회는 지난 20일 양양 문화회관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대령스님 초청 대법회 및 불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지원 합창단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 찬불가를 공연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찬불가 틀마련 기여... 악보·CD 제작 보급 23일 '음성공양의 밤' 12개합창단 참가 '갈채'

'음악공양의 밤' 공연은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 청룡사 마야합창단, 한마음선원 합창단 등 12개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이날 공연에서 '함나를 찾아서' (왕정원 작사, 조광재 작곡), '삼보에 귀의하오나' (정문스님 작곡, 강영화 작곡)를 비롯 새로 만들어진 20여곡의 찬불가가 소개됐다.

BBS의 의식찬불가 5개년 불사는 교리에 맞는 찬불가의 틀

괄에 누구나 즐겨 부를 수 있는 찬불가 제작과 사찰과 종단 등 초월해 공음으로 들 수 있는 찬불가집의 발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불교음악을 전담하는 전문인 양성과 찬불가 심의기구 마련 등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찬불가 1백곡에

대한 평가작업의 하나로 찬불가 세미나, 찬불가 선호도조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찬불가 악보와 찬불가집 등 세분화된 찬불가의 현상증명을 통해 의식부문에 치중된 찬불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조계종 찬불가집 2월 발간

1백곡 수록... 3월 17일 기념음악회도

조계종 문화사회부는 기존에 나와있는 찬불가를 선별·정리해 이를 사찰·신도용으로 널리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1백곡 합동 찬불가집을 오는 2월 발간한다. 또한 합동 찬불가집 발간기

념 불교음악회를 오는 3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 이미 불교음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찬불가 관련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기구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고대소설의 최대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도를 배경으로 한 '구운몽'의 작품세계가 인도에서 새롭게 조명됐다. 한인(韓印)문화연구회와 연세대 국학연구원, 인도 네루대가 공동으로 지난 30일 인도 네루대 한국학과 세미나실에서 '구운몽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살성경교수는 발표에서 '17세기 소설인 구운몽은 인도의 스승 육관대사가 중국에 禪을 전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조선조라는 유가시대에 유학자인 김만중이 불교의 위대한 지혜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일뿐 아니라 부처님의 나라 인도의 정신세계, 큰 스승들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은 김만중

'구운몽의 작품세계' 인도 세미나

의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시야를 보여준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임성조씨는 '구운몽의 주제와 사상개요'에서 '구운몽은 호·대승사상의 진수를 갈파한 소설로 한국 禪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문학'이라 평

최완수씨 '단원 김홍도 재조명' 발표

조선후기 최고화가로 꼽히는 단원 김홍도 탄생 2백50주년 기념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단원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지난 20일 열렸다. 세미나에서 '단원 김홍도의 재조명'을 발표한 최완수씨(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의 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단원은, 조선이 중국에서 받아들인 주자성리학을 심화발전시켜 조선 성리학으로 토착화시키면서부터 고유색 짙은 독자문화가 꽃피어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 태어나 그 문화의 최후를 장식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화가이다.



최완수씨

우리의 산수를 중국 북방화법의 특징적 기법인 선묘와

고승·신선 그린 도석화 탁월

용주사 후불탱화에 서양화 음영법 수용

남양회법의 특징인 묵법을 이상적으로 조화시켜 한 화면에 이 두가지 화법을 조화시킨 조선 고유색 짙은 진경회화를 창안하고 완성시킨 경재 정선의 회화양식을 이어받아 세련미를 첨가해 다듬은 인물이다.

으로 회화를 단순화시키는 시적 표현으로 바꾸고 사군자그림에서도 문기(文氣)를 중시해 기품을 잃지 않았다. 또한 단원은 새로운 회화물결의 새벽을 예고했다. 용주사 후불탱화를 그리면서 서양화의 음영법 수용을 시도하고 있다.

단원은 산수 인물 도석(道釋) 영모 화조 사군자 등 모든 분야의 그림에 뛰어났으며 특히 당시 생활상을 그려내는 풍속화와 신선과 고승을 그리는 도석화는 누구도 뛰어날 수 없게 뛰어났다. 풍속화는 물론이거니와 신선물이나 달마대사, 관음보살의 용모까지 중국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얼굴로 바뀌었다.

단원은 충실한 사상으로 일관하다 말년에는 생략과 여백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 지상전

두시영작 춘·하·추·동-소나무

아래의 난에 아무 격식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 주십시오. (나이 : 성별 :)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가정에서		
직장(학교)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밖에		

위 설문지를 그대로 모아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팩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책이 출판된 후, 책지와 함께 작은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주)현대불교신문사 출판국 / 전화 (02) 737-8861, 팩스 (02) 737-0697

도서출판 여시아문 -출판 예고-

행복과 불행 한몸의 두 얼굴

-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드는 책 -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행복하기도 하고, 조금씩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면 내가 행복한 일에도 다른 사람은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은 절대가치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는 '저자는 쓰고 독자는 읽는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드는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반쯤은 독자가 만든 책인 셈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의 소유자일만큼 행·불행에 대한 생각들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고 행·불행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다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내 일을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편의상 행·불행이라 말했을 뿐, 살아가는 일 그 자체에 대해 '내가 만드는 심리 처방전'인 셈이지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독자와 출판사와 독자를 대표할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와 함께' 조금은 책다운 형태의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편번호 : 110-170)
전화 : (02) 737-8881 / 팩스 : (02) 737-0697